

도시로 간 쥐

마우스는 언제나 큰 도시에 가보고 싶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본 도시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밤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빛나는 것이다. 마우스는 어느 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방을 싸고 도시로 떠났다.

도시에 도착한 마우스는 눈이 부셨다. 그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았다.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헬리콥터 등등. 그는 그 모든 것들에 놀라고 감탄했다. 그는 도시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거닐며 다른 동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를 무시하거나 쫓아냈다. 마우스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우스는 도시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음식을 찾기가 힘들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그가 살던 집 주변에 곡식이나 채소가 널려있었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쓰레기통이나 배수구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고양이, 개, 쥐덫, 쥐약 등이 그를 위협했다. 그는 매일매일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다.

마우스는 도시에서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마을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다. 그들과 함께 놀고 웃고 이야기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도시의 화려함과 번화함이 아니라, 작은 마을의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원했다. 그는 도시에서의 꿈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다.

마우스는 결심했다. 그는 도시를 떠나고 작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다시 가방을 싸고 열차역으로 갔다. 그는 티켓을 살 돈이 없었지만, 열차의 바퀴 밑에

숨어서 탈 수 있었다. 그는 열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집과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는 도시에서의 모험을 잊으려고 했다.